

100만 '대박'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 5대 비결 살펴보니

- ① 뱀부쇼 등 차별화된 콘텐츠
- ② 전시·공연·학술 행사 접목
- ③ 1만4000여 자원봉사자 활약
- ④ KTX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 ⑤ 수려한 자연경관·먹거리

숫자로 본 대나무박람회	
104만명	관객 수
5480명	고용 창출
1822억원	생산 유발 효과
805억원	부가가치 효과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지난 31일 폐막식과 함께 45일간의 '대박 행렬'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11면> '대숲에서 찾은 녹색미래'를 주제로 담양군 일원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9월 17일 개막, 내로라하는 전국 유명 가을 축제들을 제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행사로 떠올랐다. 박람회 기간 45일동안 애초 목표관객인 90만명을 돌파해 최종 104만133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담양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담양이 지닌 깨끗한 자연환경과 죽녹원 등이 어우러진 '담양다움'을 국내는 물론 세계에 알리는데도 성공했다. 정부는 담양을 중심으로 대나무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담양군민은 앞으로 대나무 조성 면적을 1만ha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성공개최 5대 비결을 분석했다.

◇뱀부쇼 등 차별화된 콘텐츠=34만㎡에 달하는 대나무 숲 죽녹원 등에서 '죽세공예부터 첨단바이오산업까지' 대나무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13개국 43개의 해외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만들어낸 대나무 작품은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대형 홀로그램을 이용한 '뱀부(Bamboo)'쇼와 죽녹원 '대나무술 8길'의 오감 만족 체험행사,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센터 등 대나무 박람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흥행을 이끌었다.

◇전시, 공연, 학술행사 접목한 세계 첫 대나무 박람회=일본 다케하라(竹原)의 대나무 등불 축제 등 축제와 학술회의는 세계 곳곳에서 열리지만 전시·

공연·학술행사를 아우르는 대나무 박람회는 담양이 처음이다. 담양대나무박람회와 함께 열린 세계대나무박람회에서는 대나무 식재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담양 선언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1만4000여 자원봉사자와 담양군민의 숨은 활약=담양군민은 손님맞이를 위해 도로변 꽃길 가꾸기부터 내집앞 청소하기, 위생·친절 서비스 교육, 바가지 요금 근절, 교통통제 등에 적극 협조했다. 연인원 1만4000여명의 자원봉사자는 박람회장 최일선에서 관람객과 소통하고, 한낮 땀방 무더위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도 담양과 박람회 알리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TX호남선개통 등 교통 편의·접근성 개선=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KTX를 타고 대나무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줄을 이었다. 담양군은 또 개인차량을 타고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을 배려해 곳곳에 무료 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주요 주차장과 박람회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해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수려한 자연경관·먹거리도 성공 견인=죽녹원과 '사계절 산책지' 관광자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인 메타세쿼이아 길, 소재원, 식영정 등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많다는 점과 대동밥·떡갈비·국수 등 다양한 대표 먹거리를 관람객 유치에 한몫을 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단 연장 ▶6면

그림편지-김해성의 중국 원난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평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또 하나의 가을야구...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폐막 광주야구가 주최한 '아로마라이프배 제5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결승전이 1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렸다. 무등리그 결승전이 끝난 뒤 김여승(뒷줄 왼쪽에서 여덟번째) 광주야구 사장과 대회를 후원한 아로마라이프 이학재(※ 일곱번째) 회장이 우승팀인 무등산생태요양병원, 준우승팀인 페가수스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

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평화협력 공동선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3국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이후 3년 반 만에 재개된 것이다.

공동선언 전문에서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과 경제적 상호의존·정치안보상 갈등 병존 현상을 극복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역사·지리·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해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총 56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 본문은 크게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 3국 정상은 선언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과 관련하여선 “2012년 5월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세 정상은 동북아 협력의 장애물로 인식돼 온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기존의 3국간 원칙만 재확인했다.

경제·사회 분야에선 한일중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보건·의료 및 문화 콘텐츠 등 고부가 가치 신(新)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암 출신 김세영 블루베이 우승

LPGA 3승·신인왕 예약

‘영암출신’의 김세영(22·미래에셋)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시즌 3승째를 수확하며 신인왕 타이틀을 ‘예약’했다.

김세영은 1일 중국 하이난섬 지안 레이 크 블루베이 골프코스(파72·6778야드)에서 열린 블루베이 LPGA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18번홀(파5) 짜릿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시즌 3승에 성공했다.

합계 2언더파 286타의 스코어를 낸 김세영은 캔디 쿡(대만)과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김 카우프만(미국)을 1타차로 따돌리고 클래식, 롯데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우승으로 신인왕 포인트 150점을 보낸 김세영(1422점)은 김효주의와 격차를 247점으로 벌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차기 검찰총장 대구 출신 김수남 내정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56·사진) 대검찰청 차장이 내정됐다고 지난 30일 청와대가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 내정자는 오는 12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후임이다. 대구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

대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6기로, 광주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정연국 대법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내정자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법질서와 법치주의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엄정하고 확고한 리더십으로 검찰을 지휘해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 적폐를 시정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메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제주 여행

버스타어(2박3일)

상품가격	완도·여수출발 269,000원 / 목포출발 249,000원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출발인원	10인 이상출발 / 10인 이하 별도 문의 / 20인 이상 오메가여행 서비스
포함사항	1. 선박: 완도-제주 or 목포-제주 왕복 선박 (여객터미널 이용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4인실 기준 2박 3. 차량: 25인승 소형버스 3일 (20명 이상 45인승 대형버스) 4. 전일정 관광지, 전일정 식사 포함 (완도발 7식, 목포발 6식)
선박정보	블루나래호: 완도(09:30발) → 제주(11:10착) / 제주(16:30발) → 완도(18:10착) 씨스타크루즈호: 목포(09:00발) → 제주(13:20착) / 제주(17:00발) → 목포(21:20착)
1일차	목포 or 완도항 출발 → 제주항도착 → 비비방만들기체험(목포출발 제외) → 천연염색체험 → 메아리체험(제주오름 트레킹) → 저녁식사(갈치조림) → 숙소
2일차	숙소 → 한라산 원전정복(성판악-백록담 코스 / 중식 도시락) → 해수사우나 → 저녁식사(흑돼지구이) → 숙소
3일차	숙소 → 세계유네스코 등재 수월봉, 차귀도 탐방 → 점심식사(해물전골) → 조랑말승마체험 → 디미파크 기마공연(완도출발 제외) → 농수산물 직판장 → 제주항 → 목포 or 완도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렌터카 자유여행(2박3일)

상품가격	4인기준 1인 149,000원부터 / 3인기준 1인 169,000원부터 2인기준 1인 214,000원부터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 본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발인원	2인 이상출발
포함사항	1. 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2박 기준 (2인 조식포함) 3. 차량: K5, YF소나타 LPG 기준 (48시간)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포함 4. 식사, 관광지 불포함.
항공정보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일반석) 항공시간: 광주출발: 15:45 제주출발: 14:25 (2박3일 일정) 유의사항: 항공기 정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도착 후 렌터카 인수 → 자유일정 → 숙소
2일차	자유일정
3일차	숙소 → 자유일정 → 제주공항 도착 및 렌터카 반납 → 광주공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숙소

제주할인 펜션	1박 50,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리조트	1박 8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호텔	1박 7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렌터카

아반떼, 레이, k3, SM3	[24시간 기준] 주중 17,000원 / 주말 23,000원
k5, YF소나타	[24시간 기준] 주중 19,000원 / 주말 26,000원
카니발, 그랜저스타렉스	[24시간 기준] 주중 39,000원 / 주말 49,000원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